



빛나간 감귤 관측·가격 하락… “지원책 필요”

도의회 농수축위 1차산업 문제 양 행정시 ‘집중포화’
동부 해녀학교 신설·양식장 취수관 공사 지연 문제도

빛나간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조사 결과, 레드향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를 저조 및 토양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확대 등 제주 감귤산업에 대한 행정지원에서의 지원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충룡 농수축위원장(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은 14일 제452회 임시회 행정시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노지감귤 생산량 관측조사에서 35만t 애기가 나오다가 올해 초까지 물량이 끝도 없이 나왔고 결국엔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농가에서도 (관측량과 실제 생산량) 이렇게 많

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지감귤 예상 관측량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비상품감귤 가격 상향 조정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요구했다. 그는 “비상품감귤 수매가격이 지난해 겨우 (kg당)10원 올랐는데, 이렇게 턱없이 낮은 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트럭을 몰고, 경운기를 몰고 팔려가겠냐”고 반문하며 “양 행정시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준비한 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장

레드향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고 자부담도 15%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이유는 감귤 관련 손해율이 사과나 복숭아(300~400%)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레드향의 열과 문제로 이를 베어내고 다른 한라봉이나 천혜향으로 선회한다면 제주 만감류 시장에도 큰

비상품감귤 수매가격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강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레드향 열과 피해를 예방하는 토양 수분 조절제 사업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농수축위원회에서는 ▷제주 해녀 양성에 따른 제주시 동부지역 해녀학교 신설 운영 ▷양배추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 확대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취수관 공사 지연 문제 ▷감귤 피해복제 지원 확대 등 1차산업 육성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2024년과 지난해 심화됐던 감귤 열과 피해(레드향 기준 20~30%대)가 올해 처음으로 정식 재해로 인정되면서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보상 기준은 수확량 감소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백극기기자 haru@ihalla.com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과 민 시장은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를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

어제 국무회의서 강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경제운영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

린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

%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저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배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하며,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전남광주시장은 서울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청와대·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가 의견수렴 범위·수준 논의… 이 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
성평등부 공론화 결론 “강력·중대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속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 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속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속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이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다. 주의보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0.12ppm으로 같다 보니 오존 농도가 기준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변동할 때 주의보가 발령됐다

가 해제되기를 반복하는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해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은 자료 전송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2026 제주생활정치아카데미

기본과정 모집안내

- 교육기간** 8. 1.(토) ~ 9. 19.(토) (매주 토요일 14:00~18:00)
- 교육대상** 제주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여성·남성 30명 이내
- 교육비** 10만원 (교육시간 80%이상 이수시 참가비 100% 환급)
- 모집기간** 7. 13.(월) ~ 07. 24.(금) 18:00까지
- 장 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제주시 산지로 27)
- 신청방법**
 - QR코드 접속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관련문의** 운영기관: (주)비즈니스그룹 / 064-711-6606

교육 일정 및 내용

- 8/1 1강: 마음 열기 110 (연영실 대표/주요(전·소·소·소))
- 2강: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 (이현정 교수/간곡(전·소·소))
- 8/8 3강: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역할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4강: 국회의 정치와 세계 시민의 미래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8/15 5강: 차이는 플러스! : 표현의 성식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6강: 차이는 플러스! : 연설의 성식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8/22 7강: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8강: 신기술을 활용한 포스트비즈니스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8/29 9강: 정치참여의 기본 원칙 신기술 이해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10강: 생활정치 이슈 발굴!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9/5 11강: 생활정치와 성평등 리더십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12강: 제주에서 정치 참여와 도전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9/12 13강: 생활정치 이슈 발굴 II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14강: 나의 정치브랜드로 나아가다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 9/19 15강: 생활정치와 이슈토론 (김민정 대표/간곡(전·소·소·소))

주최 및 주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화사의 위상, 보존과 활용 학술세미나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3:00~ 18:00
장소 | 법화사 구하루(서귀포시 하원동 1071-1)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
- 주최: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원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 회 사 상 귀 의 반아심경 내빈소개 사회자 축 사 사용서원
14:00-14:40	좌장: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원장) ▲제1주제: 법화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토론: 김중현(제주대학교박물관 팀장)
14:40-15:20	▲제2주제: 법화사 연구성과 검토와 위상 재조명 발표: 홍기보(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 토론: 함금순(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5:20-16:00	▲제3주제: 법화사의 보존과 활용방안 발표: 이화중(한양대학교박물관 연구교수) 토론: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16:00-16:20	휴 식
16:20-17:40	▲종합토론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센터장) - 배상현(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박찬식(전 제주인속지서박물관장)

제주역사문화진흥원
문의 : T. 064) 726-642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원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